

Simone Weil의 不幸의 意識에 관한 考察

—工場生活의 經驗을 中心으로—

高 元 禧

I

Simone Weil가 不幸에 관한 体系的인 思想을 形成한 哲學者는 아니다. 1930年代의 勞動問題나 政治問題에 몸소 參與해서 그 主体的인 體驗에 의해서 問題의 解答을 追求한 實踐的인 思想家다. 그녀의 思想은 한마디로 不幸의 思想이라고 形容할 수 있을 것이다. 恒時 持病으로 苦痛을 당하면서도 他人의 不행에 대해서 極히 敏感한 그녀는 他人의 不幸의 世界에 몸소 投身했기 때문에 不幸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洞察은 다른 어느 思想家의 追隨를 許容치 않는 깊이와 銳利함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녀만큼 生命의 모든 힘을 傾注하여 不행과 挑戰했던 思想家는 極히 稀少하다고 생각된다.

Simone Weil는 現實에 있어서의 人生과의 接觸을 重要視하고 있다. 그녀가 말하는 人生의 現實이라는 것은 하나의 生活條件 속에서 自己의 全人格을 바쳐 그 生活條件을 남김없이 받아들임으로써 自己以上の 것을 經驗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感覺的인 遍歷은 아무리 새로운 對象을 求해서 遍歷한다 하더라도 自己 中心的인 性格 때문에 自己以上の 것을 經驗한다는 것은 困難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人生의 現實에 대한 追求야 말로 그녀의 思想이 가지는 體驗的인 現實性的의 根源이 되고 있다. 그녀가 겪은 工場生活은 不幸의 經驗의 頂點에 놓여 있으며 그녀의 思想의 核心을 形成하게 된 커다란 意義가 內包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工場生活의 經驗을 考察해 본다는 것은 그녀의 思想의 本質을 把握할 수 있는 要諦가 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換言하면 그녀의 不幸에 대한 意識은 工場經驗의 反映에 의해서 싹트고 또한 工場經驗의 執拗한 反芻에 의해서 그녀의 不幸論이 形成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本稿는 工場經驗을 源泉으로 하는 不幸의 意識과 不幸의 意味를 究明함으로써 Simone Weil 研究에 基本的인 資料의 一部가 되도록 試圖해 보려는 것이 筆者의 意圖인 것이다.

I

Simone Weil를論하는 文章 속에는 不幸이라는 單語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만큼 그녀의 生涯는 끊임없이 不幸을 追求하고 그녀가 執筆한 著書들은 不幸의 經驗과 密着하게 反映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工場經驗以前의 그녀는 所謂 不幸의 學校의 入學志願者에 지니지 않았으나 工場經驗以後의 그녀는 이미 卒業生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Le malheur des autes est entré dans ma chair et dans mon âme."¹⁾

"J'ai reçu là pour toujours la marque de l'esclavage"²⁾

"Depuis je me suis toujours regardée comme une esclave"³⁾

不幸과 더불어 살아온 Simone Weil가 새로운 길을 開拓한것은 嚴密하게 말해서 工場經驗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서 工場經驗은 그녀의 獨自의인 生의 出發點이 된것이다. 그 理由는 工場生活以前의 그녀의 關心이나 理解및 行動은 工場經驗以後에 比하면 훨씬 斷片的이며 統一性이 없으며 極端으로 말해서 抽象的인 意味밖애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겪은 工場經驗은 工場生活 속에서 不幸의 核心을 把握함으로 因해서 비로소 Simone Weil 思想의 本質을 形成할 수 있었다는 點에서 注目해야 할 觀點이라고 생각된다. 現職 國立中學校 (lycée) 哲學教師인 Simone Weil가 個人的인 研究를 理由로 一年間의 休假를 얻어 女工이 된 動機를 그녀의 친구인 Mme Albertine Thévenon은 "勞動의 條件"(la condition ouvrière)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Son extraordinaire intelligence et sa culture philosophique lui permirent une connaissance rapide et approfondie des grands théoriciens, en particulier de Marx. Mais cette connaissance théorique de l'exploitation Capitaliste et de la condition ouvrière ne la satisfaisait pas. Elle croyait utile de pénétrer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 des travailleurs."⁴⁾

그녀는 勞動者의 生活을 다만 觀念이나 理論上으로 보는 見解를 버리고 自己의 肉体와 人格을 通해서 理解하려고 하는 決意를 품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녀는 幼年時節부터 他人에 대한 不幸에 極히 敏感한 感受性을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녀의 生涯는 한마디로 他人의 不

1) Simone Weil: Attente de Dieu, p.42 (Edition Fayard, 1966)

2) Ibid. p.42

3) Ibid. p.42

4) Simone Weil: la condition ouvrière (Editions Gallimard, 1951)

幸을 共有하려고 하는 狂氣의 燃燒였다고 볼 수가 있다.

Thévenon 夫人은 그 當時의 勞動者의 生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Je pensais et je pense encore que l'état de prolétaire est un état de fait et non de choix, surtout en ce qui concerne la mentalité, c'est-à-dire la manière d'appréhender la vie. Je n'ai aucune sympathie pour les expériences genre “roi charbon” où le fils du patron vient travailler incognito dans les mines de son père pour retourner, son expérience faite, reprendre sa vie de patron. Je pensais et je pense encore que les réactions élémentaires d'une ouvrière ne sauraient être celles d'une agrégée de philosophie issue bourgeois”⁵⁾

이러한 考察은 勞動者의 生活과 人間을 보다 잘 理解한 見解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 見解를 否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否定할 수 있는 反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下層階級의 女工이 품는 特有한 反應이 부르주아階級出身의 哲學教師의 反應이 될 수 있다는 事實일 것이다. 그러나 Simone Weil의 工場生活은 實際로 이와 같은 反證에 否定할 수가 없는 事實을 깨닫게 된 것이다. Thévenon 夫人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Si nous avons raison en général, nous nous sommes trompés en ce qui concerne Simone.”⁶⁾

Simone Weil가 勞動者의 生活에 適應할 수 있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으나 一個女教師가 1935年代 經濟恐慌時期의 無慈悲한 工場体制下에서 適應할 수 있었다는 것은 實際로 그녀의 生活原理인 “어떠한 領域에서도 自己의 觀念을 事實과의 接觸이라는 試鍊에 부딪치게 하는 것이다.”⁷⁾라는 慾求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工場에 入社하자 곧 Thévenon 夫人에게 自己의 率直한 心情을 다음과 같이 告白하고 있다.

Cette expérience, qui correspond par bien des côtés à ce que j'attendais, en diffère quand même par un abîme; C'est la réalité, non plus l'imagination. Elle a changé pour moi non pas telle ou telle de mes idées (beaucoup ont été au contraire confirmées), mais infiniment plus, toute ma perspective sur les choses, le sentiment même que j'ai de la vie.”⁸⁾

現實에 처해 있는 人生과의 接觸을 希望하고 있었던 그녀 自身이 工場生活의 現實이라는 것이 그녀의 人生觀 그 自体를 變化시킬 程度로 그녀의 豫想과는 質적으로 相異한 極 하나의 深淵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認識하게 된 것이다.

5) *Ibid.* p. 12

6) *Ibid.* p. 13

7) *Ibid.* p. 152

8) *Ibid.* p. 19

“J’ai le sentiment, surtout, de m’être échappée d’un monde d’abstractions et de me trouver parmi des hommes réels……”⁹⁾

그만큼 勞動者에게 接近하고 있었던 그녀에게 참으로 새로운 開眼의 實感을 준 工場生活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 自身도 그때까지 認識하지 못했던 人間의 不幸의 生生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人跡未踏의 跡과 같은 것이었다. 工場生活 以後에 그녀는 Perrin 神父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不幸의 經驗을 다음과 같이 告白하고 있다.

“Jusque-là je n’avais pas eu l’expérience du malheur, sinon le mien propre, qui, étant le mien, me paraissait de peu d’importance, et qui d’ailleurs n’était qu’un demi-malheur, étant biologique et non social. Je savais bien qu’il y avait beaucoup de malheur dans le monde, j’en étais obsédée, mais je ne l’avait jamais constaté par un contact prolongé. Etant en usine, confondue aux yeux de tous et à mes propres yeux avec la masse anonyme, le malheur des autres est entré dans ma chair et dans mon âme……”

“J’ai reçu là pour toujours la marque de l’esclavage, comme la marque au fer rouge que les Romains mettaient au front de leurs esclaves les plus méprisés. Depuis je me suis toujours regardée comme une esclave.”¹⁰⁾

그녀가 自己 自身の 不幸이라고 말하는 것은 持病人 間歇性竇炎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녀 自身の 不幸은 生物學的인 것으로 社會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不幸이라고 말할 수 없는 程度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病든 肉體를 가지고 八個週의 工場生活에 있어서의 혹독한 勞動의 真相과 鬪病에 대한 記述을 “勞動의 條件”에 收錄되어 있는 “工場日記”에서 역력히 찾아 볼 수가 있다.

“mal de tête très violent, travail accompli en pleurant presque sans arrêt. (En rentrant, crise de sanglots interminable.)”¹¹⁾

mal aux oreilles, à la tête…….”¹²⁾

“En rentrant, maux de tête accrus, vomissements, ne mange pas, ne dors guère;”¹³⁾

“Très pénible. _____ Dos cassé qui me fait penser à l’arrachage des patates _____ bras droit

9) *Ibid.* p. 33

10) *Attente de Dieu*, p. 41-42

11) *La condition ouvrière*, p. 52

12) *Ibid.* p. 66

13) *Ibid.* p. 72

constamment tendu___pédale un peu dure"¹⁴⁾

"souffrant d'un mal de tête accablant,..."¹⁵⁾

이와 같이 뼈져린 工場生活을 끝마친 以後 自己의 心境을 Thévenon 夫人에게 다음과 같이 告白하고 있다.

"J'ai beaucoup souffert de ces mois d'esclavage, mais je ne voudrais pour rien au monde ne pas les avoir traversés. Ils m'ont permis de m'éprouver moi-même et de toucher du doigt tout ce que je n'avais pu qu'imaginer. J'en suis sortie bien différente de ce que j'étais quand j'y suis entrée___physiquement épuisée, mais moralement endurcie."¹⁶⁾

以上の 편지나 日記의 引用을 통해서 考察해 볼 때 Simone Weil의 工場生活은 不幸에 대한 經驗이었으며 또한 不幸의 本質을 意識하게 된 動機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現實에 있어서의 人生과의 接觸을 希望해서 工場에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얻어진 經驗은 豫想을 뒤엎고 期待와 事實과의 사이에는 하나의 深淵이 가로놓여 있다는 現實을 自覺하게 되었다. 스스로 겪은 工場生活의 現實은 그때까지 그녀가 人生 그 自体에 대해서 품어왔던 態度를 全面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誤算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全面的인 誤算이었다. 그때까지 그녀가 느껴왔던 不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는 아주 相異한 不幸, 不幸이라고 하는 그녀의 概念과는 別個의 現實을 처음으로 發見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發見은 단지 目擊한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現實의 不幸이 그녀의 肉体와 魂 속에 깊숙히 스며든 것이다. 換言하면 그녀는 抽象의 世界를 脫皮해서 現實 속으로 되돌아와 烙印이 찍힌 奴隸의 存在가 된 것이다. 그것은 Thévenon 夫人이 말하는 石炭王式의 淺薄한 實驗이 아니라 女工의 心情이 女教師의 가슴에 도사리게 된 獨目的인 適應된 모습이었다. 그녀가 工場에서 Thévenon 夫人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Et je ne regrette pas une minute de m'être lancée dans cette expérience. Bien au contraire, je m'en félicite infiniment toutes les fois que j'y pense. Mais, chose bizarre, j'y pense rarement. J'ai une faculté d'adaptation presque illimitée, qui me permet d'oublier que je suis un "professeur agrégé" en vadrouille dans la classe ouvrière, de vivre ma vie actuelle comme si j'y étais destiné, depuis toujours (et, en un sens, c'est bien vrai) et que cela

14) *Ibid.* p.65

15) *Ibid.* p.56

16) *Ibid.* p.24

devait toujours durer, comme si elle m'était imposée par une nécessité inéluctable et non par mon libre choix"¹⁷⁾

Simone Weil가 工場生活에 適應할 수 있었다는 것은 無意識的으로 適應했다는 意味는 아니다. 그 理由는 이미 引用한 편지 가운데서 奴隸라는 單語가 여러 차례 言及되고 있다는 點에 있다. “工場日記”속에 “奴隸가 된 氣分”¹⁸⁾ “自己의 機械앞에서 奴隸가 된다”¹⁹⁾, “나는 奴隸처럼 일하고 있다.”²⁰⁾라고 記述하고 있다. 그녀가 奴隸라는 말을 使用한 것은 그녀가 工場生活에 適應했다기 보다는 人間의 不幸의 本質에 대해서 自覺的으로 同化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換言하면 奴隸 또는 奴隸狀態라는 表現은 不幸의 意識을 代用하는 말이다. 工場經驗에 앞서 Roanne 高校에서 講義한 노트인 “시몬느·베이오 哲學講義”에는 奴隸라는 말을 이미 使用하고 있다.²¹⁾ 그러나 그것은 人間社會의 抑壓의 一形態로써 歷史的으로 敘述된 것에 지나지 않고 不幸한 人間 Simone Weil의 經驗이 아직 內包되지 않는 空虛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工場生活 속에서 비로소 奴隸라는 말이 곧 不幸의 意識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工場에서 그녀가 認識한 奴隸의 意味는 勞動者階級の 問題로서 하나의 一般的 狀況이 아니라 그녀 自身인 한 人間의 全人格에 加해진 變貌와 그 結果에 起因되는 人格에 대한 命名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工場日記”의 敘述 속에서 充分히 考察될 수가 있다.

“Là, on se sent vraiment esclave, humilié jusqu'au plus profond de soi.”²²⁾

“Comment, moi, l'esclave, je peux donc monter dans cet autobus, en user pour mes 12 sous au même titre que n'importe qui? Quelle faveur extraordinaire! Si on m'en faisait brutalement redescendre en me disent que des modes de locomotion si commodes me sont pas pour moi, que je n'ai qu'à aller à pied, je crois que ça me semblerait tout naturel. L'esclavage m'a fait perdre tout à fait le sentiment d'avoir des droits,.....Mes camarades n'ont pas, je crois, cet état d'esprit au même degré: ils n'ont pas pleinement compris qu'ils sont des esclaves. Les mots de juste et d'injuste ont sans doute conservé jusqu'à un certain point un sens pour eux dans cette situation où tout est injustice.”²³⁾

17) *Ibid.* p.21-22

18) *Ibid.* p.100

19) *Ibid.* p.86

20) *Ibid.* p.144

21) *Leçons de philosophie de Simone Weil* (plon, 1959) p.134-231

22) *la Condition ouvrière*, p.100

23) *Ibid.* p.124

工場生活 直後에 그녀는 “이 奴隸狀態의 數個月”²⁴⁾이라는 表現으로 回顧하고 있다. 그만큼 工場經驗은 그녀에게 있어서 奴隸라는 한마디로 表現할 수밖에 없었다. “시몬느·베이의 哲學 講義”中에 노예라는 말은 하나의 觀念이며 工場生活開始 前後에 있어서는 하나의 比喻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工場生活을 마친 以後의 奴隸라는 말은 이미 그녀 自身の 人格의 命名이며 그녀 自身の 이름이 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奴隸의 意識은 단지 工場生活 數個月間의 生活感情에 그치지 않고 그 후 生涯를 통해서 持續하는 人格의 意識이 되고 있다. 그런데 勞動者의 奴隸狀態를 낳게하는 原因으로서 速度와 命令²⁵⁾ 두 가지를 들고 있다. 作業은 일단 始作되면 勞動者에게 思考의 介入을 許容치 않는다. 그 理由는 作業의 速度가 思考보다도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Il faut, en se mettant devant sa machine, tuer son âme pour 8 heures par jour, sa pensée, ses sentiments, tout.”²⁶⁾

L'ordre peut être pénible ou dangereux à exécuter, ou même inexécutable; ou bieu deux chefs dormir des ordres contradictoires; ça ne fait rien; se taire et plier……ils ne peuvent se traduire ni en paroles ni en gestes, car les gestes sont à chaque instant déterminés par le travail. Cette situation fait que la pensée se recroqueville, se rétracte, comme la chair se rétracte devant un bistouri On ne peut pas être “conscient”²⁷⁾

“Dans l'Université j'ai des droits, une dignité et une responsabilité à défendre. Qu' ai-je à défendre comme ouvrière d'usine, alors que je dois chaque jour renoncer à toute espèce de droits à l'instant même où je pointe à la pendule? Je n'ai à y défendre que ma vie. S'il fallait à la fois subir la subordination de l'esclave et courir les dangers de l'homme libre, ce serait trop.”²⁸⁾

이처럼 工場日記에서 叙述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휘감긴채 苦痛을 참는 짐바리 짐승처럼 順從하는 그녀 自身을 包含한 勞動者全體의 奴隸狀態 속에서 不斷히 思考能力을 傾注하며 不幸의 意識과 勞動條件에 따르는 不條理를 徹底하게 指摘한 그 證言은 現代의 機械文明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根源의인 反省을 要求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II

Simone Weil는 工場生活의 苦痛 속에서 思考能力을 持續하려는 獨自의인 苦惱를 體驗했다.

24) *Ibid.* p. 24

25) *Ibid.* p. 28

26) *Ibid.* p. 28

27) *Ibid.* p. 28

28) *Ibid.* p. 186

그것은 奴隸狀態에 있으면서 그것을 自覺하지 못하는 勞動者들을 代身하여 意識을 가진 狀態에 처하기를 許容치 않는 그러한 環境에서 奴隸狀態와 勞動者에 대한 不幸의 참모습을 注視해 본 것이다.

“le premier effet du malheur est que la pensée veut s'évader; elle ne veut pas considérer le malheur qui la blesse.”²⁹⁾

“L'épuisement finit par me faire oublier les raisons véritables de son séjour en usine, rend presque invincible pour moi, la tentation la plus forte que comporte cette vie: celle de ne plus penser, seul et unique moyen de ne pas en souffrir. C'est seulement le samedi après-midi et le dimanche que me reviennent des souvenirs, des lambeaux d'idées, que je me souviens que je suis aussi un être pensant”³⁰⁾

不幸에 直面해서 思考가 逃避한다는 것은 不幸의 重要한 症狀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또한 不幸의 表現을 困難케 하는 커다란 原因이 되고 있다. 思考라는 것은 단지 生理的 機能으로서의 思考力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人格의 生命活動인 것이다. 思考의 主体는 大腦가 아니라 魂인 것이다. 그러므로 思考가 不幸에서 逃避한다는 것은 單純히 回避가 아니라 屈辱感을 同伴하는 反應인 것이다. 屈從은 思考의 出入禁止地帶를 만들어 내어 眞實을 隱蔽시키기 때문이다. 不幸은 當事者에게 屈辱感을 품게하고 自己 自身の 不幸에 대해서 一種의 羞恥스러운 疾病을 감추려하는 것처럼 羞恥의 念을 품게 한다. 아울러 不幸한 人間은 思考의 逃避와 더불어 自尊心마저 喪失해 버린다. 이러한 事實은 그녀가 工場經驗을 反芻할 때에 크게 浮刻된 本質的인 症狀인 것이다. 工場生活에서의 思考의 機能은 그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l dépense à l'usage, parfois jusqu' à l'extrême limite, ce qu'il a de meilleur en lui, sa faculté de penser, de sentir, de se mouvoir.”³¹⁾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機能은 한 人間の 人格의 中心이다. 그래서 하나의 魂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그 思考하는 機能에 의해서 一定한 時間과 空間을 支配하며 所有하는 것이 絶對로 必要하다.

“Mais il n'est pas moins vrai que notre pensée est faite pour dominer le temps, et que

29) *Ibid.* p. 328

30) *Ibid.* p. 67

31) *Ibid.* p. 340

cette vocation doit être préservée intacte en tout être humain”³²⁾

“Rien n’est si puissant chez l’homme que le besoin de s’approprier, non plus juridiquement mais par la pensée, les lieux et les objets parmi lesquels il passe sa vie et dépense la vie qu’il a en lui.”³³⁾

이와 같은 意味의 所有는 예를 들어 料理士가 부엌을 나의 부엌이라고 말하고 庭園士가 잔디밭을 나의 잔디밭이라고 말하는 같은 意識인 것이다. 이와 똑같이 工場勞動者는 思考에 의해서 “나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所有해야 하지만 實際로는 아무것도 所有하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機能으로서의 思考가 逃避하는 것을 그녀는 자주 動物과 죽음과의 關係에 比喩하고 있다.

“La pensée fuit le malheur aussi promptement, aussi irrésistiblement qu’un animal fuit la mort.”³⁴⁾

“il est aussi facile de diriger volontairement la pensée vers le malheur que de persuader à un chien, Sans dressage préalable, de marcher dans un incendie et de s’y laisser carboniser”³⁵⁾

肉体的인 苦痛과 結付되지 않는 苦痛이 不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思考의 適切한 處置에 의해서 消滅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思考와 正面에서 對決하고 그것을 逃避하게 하는 것은 肉体的인 苦痛이다.

“Il n’y a ici-bas que la douleur physique et rien d’autre qui ait la propriété d’enchaîner la pensée.”³⁶⁾

그래서 肉体的인 苦痛에 의해서 強制되지 않는限 思考는 不幸과 接觸하려고 하지않는다. 接觸하는 경우의 思考의 苦衷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比喩한다.

“un condamné est contraint de regarder pendant des heures la guillettines.”³⁷⁾

이러한 苦痛에서 거짓이 생긴다. 思考가 죽음을 避하는 動物과 같이 재빨리 虛言 속에 逃避

32) *Ibid.*, p. 349

33) *Ibid.*, p. 340

34) *Attente de Dieu*, p. 99

35) Simone Weil: *Pensées sans ordre concernant l’amour de Dieu*, p. 75 (Editions Gallimard, 1962)

36) *Attente de Dieu*, p. 99-100

37) *Ibid.*, p. 100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虛言은 一時的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惡德으로서 몸에 배어 眞實에 대한 感覺을 喪失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녀의 表現에 의하면 그것은 “生存의 本能”³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不幸한 人間은 思考의 領域에서 自由를 喪失한다. 所謂 “奴隸의 思考” 以外の 思考를 所有할 수 없는 人間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逃避하는 以外에 아무런 能力도 없는 思考는 이제 人格의 尊嚴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思考의 逃避는 不幸을 內面化하고 魂의 次元에 있어서 發生되는 第一次的인 것이며 不幸에 대한 正確한 表現을 不可能케 하는 原因中에 하나가 되고 있다.

IV

Simone Weil가 工場生活에서 体得한 不幸의 意識과 不幸의 意味란 어떤 것인가를 論述해 보고자 한다. 그녀가 自己思想의 主題로 삼고 있는 不幸論은 思辯을 통해서 形成된 概念이 아니라 現存하는 驚異의인 事實性이었다. 罪없는 人間이 苦痛을 당하는 것 그 事實 그 自体로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人爲的인 事態라면 그 背後에는 犯人の 손이 뻗어 있고 長期間의 苦痛인 경우와 같은 自然的인 事態라면 그 背後에는 宇宙의 法則이 있기 때문이다.

“Mais il est étonnant que Dieu ait donné au malheur la puissance de saisir l'âme elle-même des innocents et de s'en emparer en maître souverain. Dans le meilleur des cas, celi qui marque le malheur ne gardera que la moitié de son âme ”³⁹⁾

不幸이 驚異의인 理由는 그것이 神에 대해서 默認되고 있다는 것 다시말해서 그것이 創造의 領域에서 是認되고 있다는 點이다.

“Être des creatures, ce n'est pas nécessairement être malheureux, mais c'est nécessairement être exposé au malheur.....On demande Pourquoi Dieu permet le malheur, on pourrait aussi bien demander pourquoi; Dieu a créé.”⁴⁰⁾

“La grande énigme de la vie humaine, ce n'est pas la souffrance, c'est le malheur.”⁴¹⁾

이와 같은 叙述의 意味는 不幸이 創造 그 自体를 수수께기로 하고 있다는 點이다. 人間生活에서 커다란 수수께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苦痛이 아니라 不幸이라고 하는 叙述은

38) Pensées sans ordre concernant l'amour de Dieu, p.114

39) Attente de Dieu, p.101

40) Pensées sans ordre concernant l'amour de Dieu, p.123

41) Attente de Dieu, p.101

1935년에 工場生活에서 記述한 “主要한 事實은 苦痛이 아니라 屈從이다”라고 하는 一節을 想起케 한다. 苦痛은 人生의 一面의 狀況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 單語이며 工場生活以來 그녀는 이 單語에 대해서 內面化된 問題를 表現할 수 없다는 不滿을 가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屈從이라는 單語가 人格의 尊重을 剝奪하는 狀態를 보다 잘 反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L’humiliation aussi est un état violent de tout l’être corporel, qui veut bondir sous l’outrage, mais doit se retenir, contraint par l’impuissance ou la peur.”⁴²⁾

苦痛이란 魂의 次元에 있는 問題를 表現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의 不幸論에서는 術語로서의 價値를 認定받지 못하고 있다. 不幸은 苦痛과는 相異하며 眞理로서의 意義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單純히 苦痛과는 區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見解이다.

Dans le domaine de la souffrance, le malheur est une chose à part, spécifique, irréductible. Il est tout autre chose que la simple souffrance Il. s’empare de l’âme et la marque: jusqu’au fond, d’une marque qui n’appartient qu’à lui, la marque de l’esclavage.”⁴³⁾

不幸은 人間이 그 肉體的 次元에서 考察할 때 一種의 苦痛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는 還元不能한 것이 있다. 그것은 單純한 肉體的 次元과는 相異한 別個의 次元에 屬하는 本質이다. 그러나 肉體的 苦痛은 그 自体로서는 魂의 次元에 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不幸을 構成하는 不可缺의 要素이다.

“Si la douleur physique est tout à fait absente, il n’y a pas malheur pour l’âme, parce que la pensée se porte vers n’importe quel autre objet.”⁴⁴⁾

“En revanche une douleur seulement physique est très peu de chose et ne laisse aucune trace dans l’âme. Le mal aux dents en est un exemple”⁴⁵⁾

그러나 肉體的 苦痛 그 自体를 그녀는 不幸이라고 보지 않는다.

Le malheur est inséparable de la souffrance physique, et pourtant tout à fait distinct.”⁴⁶⁾

42) *Ibid.*, p. 99

43) *Ibid.*, p. 98

44) *Ibid.*, p. 99

45) *Ibid.*, p. 99

46) *Ibid.*, p. 98

結局 肉体的 苦痛은 肉体的 次元에서 生存하는 人間을 魂의 次元에까지 移行케하는 觸發로서의 意義를 가지는데 그친다. 하지만 肉体的 苦痛을 거치지 않는 不幸論은 抽象的인 것이다. 그녀의 表現에 따르면 空想的인 것이다.

Dans la souffrance, tout ce qui n'est pas lié à la douleur physique ou à quelque chose d'analogique est artificiel, imaginaire, et peut être anéanti par une disposition convenable de la pensée."⁴⁷,

그러므로 苦痛이라는 것은 一種의 敎化的 手段으로서 評價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不幸과 肉体的 苦痛과의 本質的인 差異點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녀는 이 兩者를 다음과 같이 區別시키고 있다.

"le malheur n'est pas la douleur. Le malheur est bien autre chose qu'un procédé pédagogique de Dieu."⁴⁸,

換言하면 그녀는 "不幸은 하나의 惡이 될 수 있으나 苦痛은 하나의 善이 될 수 있다."⁴⁹고 簡潔하게 區別하고 있다. 요컨대 苦痛은 神의 敎化的 處置로서 善이 될 수가 있으나 不幸은 그것이 肯定되는 段階에 이르러서도 最後까지 惡인 것이다. 肉体的 苦痛에 比하면 心的 苦痛이라는 用語는 그 自体가 苦痛의 內面化를 어느程度로 表示하고 있지만 그녀의 不幸觀의 語彙로서는 充分한 意義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Même dans l'absence ou la mort d'un être aimé, la part irréductible du chagrin est quelque chose comme une douleur physique, une difficulté à respirer."⁵⁰,

心的 苦痛에는 肉体的 苦痛과 같이 魂의 次元으로 移行을 促求하는 還元不能의 部分이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認定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還元不能의 核 周邊에 集中하고 있지 않는 心的 苦痛은 다만 로망티즘이며 文學이다"⁵¹라고 그녀가 말할 때 그 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의 不幸論에 있어서 心的 苦痛이 어떻게 不幸과 區別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

47) *Ibid.*, p. 98

48) *Ibid.*, p. 117

49) Simone Weil: Cahiers, p. 13 (plon, 1951)

50) *Attente de Dieu*, p. 98-99

51) *Ibid.*, p. 99

졌다.

"Entre le malheur et tous les chagrins qui, même s'ils sont très violents, très profonds, très durables, sont autre chose que le malheur proprement dit, il y a la fois continuité et la séparation d'un seuil, comme pour la température d'ébullition de l'eau. Il y a une limite au-delà de laquelle se trouve la malheur et non en deca. Cete limite n'est pas purement objective; toutes sortes de facteurs personnels entrent dans le compte. Un même événement peut précipiter un être humain dans le malheur et non un autre."⁵²⁾

그녀는 心的 苦痛과 不幸을 分離하는 境界線이 存在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境界線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에 의하면 不幸한 人間이 "왜냐?"라고 絶對할 때의 結果에 의해서 區分될 수가 있다. 만약 그에게 부딪친 事態가 참된 不幸이라면 그 絶對에는 答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反對로 "왜냐"라는 絶對에 答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은 아직 心的 苦痛의 領域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答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不幸의 確實性을 判斷하는 基準이 된다.

Le pourquoi du malheur ne comporte aucune réponse, parce que nous vivons dans la nécessité et non dans la finalité.....Chaque fois que nous demandons la finalité au monde, il la refuse."⁵³⁾

요컨대 不幸이란 心的 苦痛의 量的 增加에 의해서 自然發生하는 客觀的 事實은 아니다. 苦痛이 그와 對決하는 個人의 人格과 關係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獨自의인 領域에 있는 問題이다. 그녀가 不幸으로서의 心的 苦痛의 中心에 있는 還元不能의 核이라는 것은 拂騰을 거쳐 展開하기 始作하는 人格의 問題의 萌芽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不幸의 要素를 構成하는 세 가지 要素로서 ①肉體的 苦痛, ②魂의 破壞, ③社會의 人格喪失등을 들고 있다. 이것을 簡單히 社會的, 心理的, 肉體的 要因이라고 稱할 수가 있다.

"L'extrême malheur, qui est à la fois douleur physique, détresse de l'âme et dégradation sociale, constitue ce clou"⁵⁴⁾

52) *Ibid.* p.100-101

53) *Pensées sans ordre concernant l'amour de Dieu*, p.128

54) *Attente de Dieu*, p.120

한 人間存在은 그 肉體 및 魂에 있어서 또한 그 社會的 人格에 있어서 不幸에 처하고 있다. 그녀는 이들 三要素를 “우리들의 存在의 세가지面”⁵⁵⁾이라고 말한다. 그 中에서 그녀가 가장 重要視하는 것은 社會的 人格喪失인 것이다.

“Il n’y a vraiment malheur que si l’événemens qui a saisi une vie et l’a déracinée l’attein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ans toutes ses parties, sociales, psychologique, physique. Le facteur social est essentiel. Il n’y a pas vraiment malheur là où il n’y a pas sous une forme quelconque déchéance sociale ou appréhension d’une telle déchéance”⁵⁶⁾

그녀가 이와 같이 社會的 要素를 強調하는 것은 工場經驗이 特히 社會的 意義를 濃厚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詩人 Bousquet에게 부친 書簡 中에서 工場經驗을 “社會的 人格喪失의 不幸”이라고 稱하고 있다. 不幸을 表現한다는 것은 困難하기 때문에 不幸은 그 當事者를 社會 中에서 孤立狀態에 몰아넣게 한다. 그러므로 不幸한 人間에 대한 同情은 不可能한 일이다”⁵⁷⁾라고 言及한 그녀는 不幸한 人間에 대한 同情은 水上의 步行이나 死者의 復活과 匹敵할 만큼 奇蹟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孤立狀態 中에서 不幸한 人間の 마음에는 奇妙한 自己評價를 낳게 한다.

“Le malheur durait et désespère parce qu’il imprime jusqu’au fond de l’âme, comme avec un fer rouge, ce mépris, ce dégoût et même cette répulsion de soi-même, cette sensation de culpabilité et de souillure, que le crime devrait logiquement produire et ne produit pas. Le mal habite dans l’âme du criminel sans y être senti. Il est senti dans l’âme de l’innocent malheureux.”⁵⁸⁾

犯罪者들에게만 適應되는 精神狀態가 不幸한 人間の 精神狀態가 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犯罪者들에게만 適應되는 精神狀態 즉 罪責感과 汚辱의 自己嫌惡感이 犯罪者가 아니라 無辜의 不幸한 人間에게 도사리게 되고 同時에 그러한 錯誤가 周圍의 人間에게도 낳게 한다는 點이다.

“Les poules se précipitent à coups de bec sur une poule blessée. C’est un phénomène aussi mécanique que la pesanteur.”⁶⁰⁾

55) Pensées sans ordre concernant l’amour de Dieu, p. 108

56) Attente de Dieu, p. 100

57) Pensées sans ordre concernant l’amour de Dieu, p. 80

58) Attente de Dieu, p. 102

59) *Ibid.* p. 103

60) *Ibid.* p. 104

요컨대 社會的 要素는 不幸을 人格의 問題로 삼는 最大의 要因으로서 重要視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結局 人間存在의 根本的인 要素로서 不幸을 指摘하고 있는 點은 重要한 問題를 提起하고 있으며 또한 그녀가 苦闘에 의해서 發見한 不幸과 眞理와의 血緣關係를 省察해 본다는 것은 人間의 根源的인 問題를 研究하는데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V

工場經驗의 가장 重要한 內容의 하나로서 不幸에게는 그 表現을 困難케 하는 本質을 지니고 있다는 認識이었다. 그 認識은 그녀의 不幸論中에 不幸을 表現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命題로서 存續한다. 不可能하다는 原因을 다음과 같이 考察해 볼 수가 있다.

- 1) 思考가 逃避하기 때문이다.
- 2) 屈從이 思考의 出入禁止地帶를 만들어 내어 眞實을 隱蔽시키기 때문이다.

"l'humiliation a toujours pour effet de créer des zones interdites où la pensée ne s'aventure pas et qui sont couvertes soit de silence soit de mensonge, quand les malheureux se plaignent, ils se plaignent presque toujours à faux, sans évoquer leur véritable malheur; et d'ailleurs, dans le cas du malheur profond et permanent, une très forte pudeur arrête les plaintes."⁶¹⁾

3) 不幸은 描寫해야 할 實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不幸은 겉으로 보아서 바로 그것이라고 알 수 있는 苦痛이 아니라 沸騰點과도 흡사한 境界線을 넘을 때까지 內面化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描寫하려고 해도 表現手段을 捕捉할 수 있는 實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Il est difficile d' être cru quand on ne décrit que des impressions. Pourtant on ne peut décrire autrement le malheur d'une condition humaine. Le malheur n'est fait que d' impressions."⁶²⁾

不幸의 經驗, 不幸과의 接觸이라고 하는 必要性이 痛感되는 所以가 바로 이 때문이다. 不幸을 앞에 두고 言語는 無力하게 된다.

"ceux à qui il est arrivé un de ces coups après lesquels un être se débat sur le sal comme

61) la condition ouvrière, p. 342

62) Ibid. p. 342

un ver à moitié écrasé, ceux-là n'ont pas de mots pour exprimer ce qui leur arrive. Parmi les gens qu' ils rencontrent, ceux qui, même ayant beaucoup souffert, n'ont jamais eu contact avec le malheur proprement dit n'ont aucune idée de ce que c'est. C'est quelque chose de spécifique, irréductible à toute autre chose comme les sons, dont rien ne peut donner aucune idée à un sourd-muet."⁶³⁾

言語가 無力하고 不幸과 言語와의 關係가 지극히 稀薄하다는 事實은 그녀의 不幸論에 있어서는 不幸의 本質이 되고 있다. 不幸을 描寫할 수 있는 表現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確實히 特殊한 言語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不幸自体에 沈黙이라고 하는 神秘性이 있기 때문이다. 屈辱感 때문에 當事者が 自己의 不幸을 隱蔽한다는 것, 不幸앞에 言語가 無力하다는 것 以外에 不幸의 表現을 困難케 하는 原因으로서 不幸 그 自体가 지니고 있는 神秘性이 있다. 換言하면 不幸에게는 自己 顯示의 作用이 없다는 것 즉 沈黙이 不幸의 狀態라는 것이다.

Rien n'est plus difficile à connaître que le malheur; il est toujours un mystère. Il est muet, comme disait un proverbe grec"⁶⁴⁾

Chaque condition malheureuse parmi les hommes crée une zone de silence où les êtres humains se trouve enfermés comme dans une île."⁶⁵⁾

不幸의 이와 같은 沈黙은 그녀의 不幸論에 있어서 不幸이란 단지 人爲의 所産이 아니라 創造論的인 意味에 있어서 --個의 實體라는 것에 由來될 수가 있다. 即 不幸은 하나의 眞理로서의 神秘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表現을 가질 수 없는 不幸은 不幸한 人間으로 하여금 必然的으로 孤立狀態에 몰아넣게 한다.

la vraie connaissance des malheureux implique celle du malheur."⁶⁶⁾

不幸에 대한 無知는 그대로 不幸한 人間の 疎外狀況을 낳게 한다. 그 疎外狀況은 아주 極甚하다.

"Ceux qui ont été eux-même mutilés par le malheur sont hors d'état de porter secours à

63) Attente de Dieu, p.101-102

64) la condition ouvrière, p.342

65) Ibid. p.342

66) Pensées sans ordre concernant l'amour de Dieu, p.117

qui que ce soit et presque incapables même de le désirer. Ainsi la compassion à l'égard des malheureux est une impossibilité. Quand elle se produit, c'est un miracle plus surprenant que la marche sur les eaux, la guérison des malades et même la résurrection d'un mort."⁶⁷⁾

不幸한 人間은 周圍에 대해서 完전히 커뮤니케이션을 喪失한다. 이것이 前記한 社會的 人格喪失의 發端이 되고 있다. 그녀가 즐겨 使用하는 比喩의 하나는 輕犯罪 裁判所에 連行되어 능청스러운 弄談을 驅使하는 司法官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浮浪者의 모습이다. 그는 무엇을 말해도 司法官의 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音聲이 아니라 無言의 絶叫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人格이 默殺되는 것처럼 不幸이라고 하는 한 眞理가 人間社會 속에서 埋沒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埋沒된 것을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은 그 眞理에 대한 獨自의 注意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不幸과 眞理는 Simone Weil의 不幸論에 있어서는 同意語이다. 眞理로서의 不幸이란 浮浪者를 比喩해서 象徴되고 있는 것처럼 日常의인 人間의 耳目이 捕捉할 수 없을 程度로 外見上으로는 不在의 狀態에 빠져 있는 人間性이며 그것을 發見한다는 것은 創造的인 行爲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그것을 發見할 수 있는 注意를 創造的인 注意라고 부르고 있다.

"L'attention creatrice consiste à faire réellement attention à ce qui n'existe pas. L'humanité n'existe pas dans le chair anonyme inerte au bord de la route. Le Samaritain qui s'arrête et regarde fait pourtant attention à cette humanité absente, et les actes qui suivent témoignent qu'il s'agit d'une attention réelle"⁶⁸⁾

Simone Weil가 말하는 注意의 概念은 오히려 奇蹟的인 것으로 도저히 日常的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不幸한 人間은 그러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는 社會에서는 一種의 言語障害者로서 生存할 수밖에 道理가 없다. 요컨대 不幸한 人間은 一種의 失語症患者가 되고 마는 것이다. 언제나 不幸한 人間과 더불어 살아온 그녀가 보는 見地에서는 知識人들의 發言 즉 民主主義, 權利, 人格 등은 모두가 不幸의 眞實에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못하는 奢侈스러운 言語에 不遇하다고 痛烈하게 批判하고 있다. 結局 가장 重要한 點은 言語障害者가 된 人間들의 마음속 깊이 潜在하고 있는 不幸의 眞相을 如何히 明瞭하게 描寫해 줄 수 있느냐하는 表現이 問題로서 提起된다. 그러한 表現의 하나가 文學作品이다. 文學作品을 통해서 Simone Weil의 思想的 世界를 反映시킨 作家는 Albert Camus다. Simone Weil라는 特異한 思想家가 文學史, 思想史에 있어서 如何한 位置를 찾아하고 있는가는 輕率하게 論할 수는 없으며 今後 여러 思想家들의 評價에

67) Attente de Dieu, p.102

68) Ibid. p.136

달려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그녀의 思想이 現代思想史에 이미 滲透가 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特히 그녀의 思想에 있어서 Camus가 크게 影響을 받은 點은 Simone Weil에 대한 評價라는 點에서 또한 Camus에 대한 認識이라는 點에서도 크게 注目해야 할 課題라고 생각된다. Camus가 感受한 Simone Weil에 대한 共感은 人間의 日常生活의 不條理를 徹底하게 體驗한 先覺者에 대한 敬意였다고 생각된다. “시지프스神話”속에 展開된 日常生活의 不條理的 性格은 不幸의 經驗에 投身한 女教師의 肉體를 통해서 또한 그 辛酸을 통해서 反映된 Simone Weil의 工場生活의 苦痛을 描寫하고 있는 背景을 느끼게 한다. 「起床·電車·事務所 또는 工場에서 四時間, 食事, 電車 四時間, 勞動·食事·睡眠. 그래서 月火水木金土 같은 狀況에서 지냄.」“이라는 시지프스神話”의 敘述은 마치 Simone Weil의 工場生活의 苦痛의 리듬과 合致한다. 이와 같이 Camus의 作品에서 Simone Weil의 影響의 痕跡을 指摘하는 批評家가 적지않다는 點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커다란 研究課題가 되리라고 筆者는 믿고 있다.

Ⅶ

不幸이라는 말은 1930年代의 歷史의 展開에 따른 그녀의 諸經驗에서 抽出된 하나의 實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의 關心의 對象은 그녀의 社會思想이이나 宗教思想이든 간에 Simone Weil 思想의 根柢에는 이러한 實在에 관한 證言이 있다는 것을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佛蘭西 實存哲學者 G. Marcel도 Simone Weil를 理解하기 위한 條件으로써 實在에 대한 渴望을 들고 있다. Simone Weil가 말하는 不幸이란 단지 貧困이나 苦痛의 總稱은 아니다. 그녀 自身の 그것을 內面化하고 昇華할 수 있을 때까지 發想하지 않았던 깊은 經驗과 反芻를 背景으로 가진 思想的 意義의 깊은 述語인 것이다. 그것은 단지 思辯的인 概念은 아니다. 歷史 속에서 언제나 潛在하고 있는 現實的인 事實이다. 그녀의 不幸論은 이러한 實在를 觀念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1930年代의 現實 속에서 實際로 體得하고 歷史 속에서 그 實在를 指摘하고 摘發하여 그 實在와 더불어 生存하면서 거기에 自己의 生命을 내던지려고 하는 主張인 것이다.

Simone Weil의 不幸論을 一貫하고 있는 그러한 衝動은 그녀가 말하는 “사랑의 狂氣”라는 語感으로써 表現할 수가 있다. 換言하면 他人의 不幸을 共有하려는 狂氣의 燃燒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相對人格을 支配하는 이 世界에 生存하면서 사람들이 默殺해 버리고 돌이켜 보지않는 絶對的 人格을 白日下에 밝히는데 自己의 使命을 傾注하려는 情熱이다. 그녀의 使命은 時間과 場所를 超越해서 眞摯하게 不幸에 대한 眞理와 맞싸워 冷酷한 現實의 抑壓에 直面하려고 하는 人間들에게 強烈한 激勵와 呼訴를 서슴치 않았다. 34歲로 逝去한 그녀가 남긴 證言의 重要性은 現代社會의 根源的인 不條理를 徹底하게 指摘하고 現代社會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根源的인 反省을 促求케 하는데 있다. 그녀의 不幸論은 그 諸經驗의 苦痛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諦念은 아니다. 時代와 歷史에서 超脫한다든지 逃避하는 것이 아니라 時代와 歷史 그 自体의 內部에 潛在하고 있는 不幸의 本質을 밝히기 위한 證言인 것이다. 요컨대 不幸에 대한 그녀의 證言은 어떠한 이데오르거나 敎義의 힘을 빌지 않고 그녀 自身の 獨自性을 가진 證言이라는 것이 다른 思想家에서 찾아 보기 힘든 偉大性과 아울러 現代思想界에 미치는 커나란 意義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Résumé—

Réfexions sur la Conscience du Malheur de Simone Weil

Ko Won-hee

Il ne suffit pas à Simone Weil de donner des conseils et d'élaborer une doctrine sociale; elle veut partager le malheur d'une classe opprimée. Consciente de l'importance du travail manuel, elle décide d'en faire l'expérience. Simone Weil a dénoncé dans le travail mort un mode d'activité essentiellement inhumain et même anti-humain. Dans le travail mort, l'homme n'est plus un être pensant, mais un objet comme ceux qu'il est condamné à produire. Et il produit uniquement pour ne pas mourir de faim; il n'est pas question pour lui de participer consciemment à l'effort immense de production auquel collaborent en face tous les travailleurs de toutes les spécialités. Le travailleur mort est coupé de son ouvrage, coupé de ses compagnons et de leur ouvrage, coupé de l'humanité, de lui-même et de l'univers; il est donc coupé de la vie et du vrai bonheur. Et derrière lui, c'est toute la masse des hommes qui est coupée d'elle-même, du monde réel et des fins réelles. Au travail mort, qui laisse l'ouvrier ignorant de son rôle propre dans l'ensemble de la production, Simone Weil envisage de substituer ce qu'elle appelle le travailleur conscient.

Sa manière de vivre, son tempérament supra-intellectuel, sa gaucherie sur le plan manuel, autant d'éléments qui aggravent pour Simone Weil la dureté de la vie ouvrière. Nous ne voulons pas nier le caractère inhumain du travail en usine, mais il nous faut remarquer qu'il est considérablement majoré pour Simone Weil. Ses jugements subirent aussi le contre-coup de son inadaptation personnelle. Simone Weil n'ignorait point le malheur, elle en était obsédée, mais ce contact avec la masse anonyme lui donne un sens aigu de la souffrance.

Pour elle, aussi, c'était l'amour des malheureux qui dominait.

Cette compassion des malheureux est un des traits essentiels de sa vie profonde. Cependant, Simone Weil était loin de se sentir satisfaite; à qui aime vraiment, la compassion est un tourment.

En 1934 elle décida de prendre, dans toute sa dureté, la condition ouvrière. Elle y

connut la faim, la fatigue, les rebuffades, l'oppression du travail à la chaîne, l'angoisse du chômage.

Pour elle, ce n'était pas une expérience, mais une incarnation réelle et totale. Son journal d'usine est un témoignage poignant. L'épreuve surpassa ses forces; son âme fut comme écrasée par cette conscience du malheur; elle en restera marquée toute sa vie.

Bien entendu, il est aisé de trouver chez Simone Weil des constantes, nous dirions des constantes essentielles dans le sens de la charité et du sacrifice, dans l'ordre surtout d'une direction d'existence vouée à l'Absolu. La trame est identique, seul le dessin change, mais le dessin peut masquer la trame.

Ce qui forme l'essence de la vie de Simone Weil, c'est son amour de la vérité.